

보도일시 (인터넷) 2023. 10. 5.(목) 11:00,
(지면) 2023. 10. 6.(금) 조간

배 포 2023. 10. 5.(목) 06:00

청년들의 어촌 유입을 위한 지원 확대한다

- 청년어촌정착지원사업 2024년 정부 예산안 전년 대비 약 31% 확대

해양수산부(장관 조승환)는 내년도 청년어촌정착지원 사업 예산안을 올해 (19억 2천 6백만 원)보다 약 31% 증가한 25억 2천 7백만 원으로 편성하였다.

청년어촌정착지원 사업은 청년들의 수산업 관련 창업과 안정적인 어촌 정착을 유도해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사업으로, 수산업경영 경력 3년 이하의 만 40세 미만 청년 어업인에게 최장 3년간 월 최대 110만 원을 지원한다.

해양수산부는 2018년 100명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총 1,135명*의 청년 어업인을 지원하였으며, 내년에는 예산안 확대에 따라 지원대상을 300명까지 늘릴 예정이다. 내년에 지원을 받길 원하는 사람은 거주하고 있는 관할 시·군·구에 문의한 후, 사업 계획서 등을 구비하여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.

* 지원대상(명) : ('18) 100 → ('19) 169 → ('20) 208 → ('21) 206 → ('22) 225 → ('23) 227

아울러, 청년어촌정착지원 사업 선정자의 소득 보전을 위해 취업 활동의 제한 요건도 완화한다. 사업 선정자가 어업 및 양식업 외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기간은 당초 3개월이었으나, 이를 6개월까지 확대하여 어한기 등 어업에 종사할 수 없는 기간에 소득 보전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.

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“살기 좋은 어촌, 살고 싶은 어촌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촌에서 우수한 청년 인력들의 활발한 창업 및 경제활동이 이루어져야 한다.”라며, “해양수산부는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어촌에 정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정책적 방안들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.”라고 말했다.

담당 부서	어촌양식정책관 어촌어항과	책임자	과 장	김정화 (044-200-5650)
		담당자	사무관	김건호 (044-200-5662)

참고1

청년어촌정착지원 사업 개요

□ 사업내용

- (목적) 청년인력의 어업창업과 어촌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정착 자금을 지원, 청년 일자리 창출과 어촌 고령화 문제 해소
- (지원규모) 2,527백만원('24년 정부 예산안)
- (지원대상) 수산업(어업·양식업, 유통·가공업) 경력 3년 이하 만 40세 미만
 - * 어업 및 양식업 창업 예정자 포함
- (지원내용) 1인당 최대 월 110만원 최장 3년 지원
 - * (어업경영 기준) 1년차 110만원/월, 2년차 100만원/월, 3년차 90만원/월
 - ** (사용용도) 어업경영비·가계자금(어업분야 창업, 어촌정착에 필요한 비용 지원)
- (지원조건 /시행주체) 국비 70%(농특), 지방비 30% / 지자체

< 청년어업인 정착지원 사업 선정 현황 >

(단위 : 명)

구분	계	부산	인천	울산	경기	강원	충북	충남	전북	전남	경북	경남	제주
'18년	100	-	1	-	2	3	-	17	8	54	2	10	3
'19년	169	4	3	-	3	7	1	28	14	88	7	12	2
'20년	208	5	6	2	4	8	-	27	17	100	12	25	2
'21년	206	4	6	1	3	8	-	21	15	105	12	30	1
'22년	225	3	1	2	2	19	-	24	18	106	11	37	2
'23년	227	2	8	-	3	23	-	25	16	89	16	40	5

□ 사업 예산 주요 현황

(단위 : 백만원)

'18년	'19년	'20년	'21년	'22년	'23년	'24년 (정부 예산안)	증감현황	
							금액	비율
604	1,474	1,474	1,560	1,712	1,926	2,527	601	31.2%